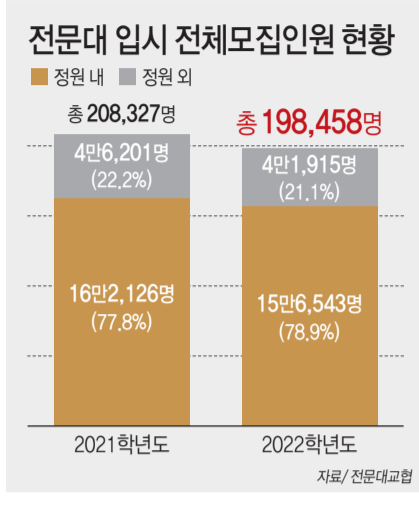


# 전문대 정원 1만명 줄어든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  
2022학년도 전문대입학전형 계획

학령인구 급감, 모집인원 영향  
수시모집 비율 88%로 확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1만여명 줄어든다.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비율 88%로 전년도보다 확대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35개 전문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2022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한 주요사항을 16일 발표했다.

전문대학은 2022학년도 입학전형으로 전체 19만8458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는 2021학년도 20만8327명보다 4.7%p인 9869명 감소한 수치다. 전체 모집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정원 내/외 모집인원 모두 감축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78.9%인 15만6543명이다. 전 학년도 16만2126명(77.8%)보다 3.4%p인 5583명이 감소했다.

정원 외 모집인원은 4만1915명으로 전 학년도 4만6201명보다 4286명 감소했다.

모집시기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시기에 134개교에서 17만5398명을 뽑는다. 전체 모집인원의 88.4%다. 정시모집 시기에는 전국 135개교에서 2만30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시모집의 경우, 전 학년도 17만9486명보다 4088명이 감소한 17만5398명을 선발한다.

전문대학은 수시모집을 2회 나눠 실시하는데, 수시모집 1차에서는 전 학년도 13만6497명보다 1210명 증가한 13만7707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2차에서는 전 학년도 4만2989명보다 5298명이 감소한 3만7691명을 뽑는다.

또한, 정시모집의 경우 전 학년도보다 20% 감소한 인원을 뽑는다. 지난해

는 2만8481명을 선발했지만 2022년 입시에서는 5781명이 감소한 2만3060명을 선발한다.

전공별로는 간호·보건분야 선발인원이 4만5449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학과의 22.9%를 차지한다. 다음은 ▲기계·전기전자분야 3만8941명(19.6%) ▲호텔·관광분야 3만2300명(16.3%) ▲회계·세무·유통분야 1만5337명(7.7%) ▲외식·조리분야 1만3138명(6.6%)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전공별 모집인원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간호·보건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 ▲생활체육 ▲실용음악 ▲국방분야가 전 학년도 대비 모집인원을 늘려 선발한다.

전문대학은 학생선발 시 주된 선발 자료를 학생부로 해 선발하는 학생부 위주전형을 통해 전체 인원의 68.8%를 선발한다. 인원은 13만6443명이다. 이어 ▲면접 위주 2만4512(12.4%) ▲서류 위주 2만2699명(11.4%) ▲수능 위주 7581명(3.8%) ▲실기 위주 7223명(3.6%)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 위주는 전 학년도 7402명보다 179명(2.4%)이 증가한 7581명 선발한다. 면접 위주는 전 학년도 2만4287명보다 225명(0.9%)이 증가한 2만4512명을 뽑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아주대가 LG그룹 출신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된 (주)엔젤식스플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아주대

## 아주대-엔젤식스플러스, 학생창업 지원

창업관련 정보 제공, 컨설팅·솔루션

아주대가 LG그룹 출신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된 엔젤식스플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업 교육을 내실화·전문화하고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LG그룹 출신의 전문 경영인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아주대와 엔젤식스플러스는 지난 8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부회장을 지낸 박진수 엔젤식스플러스 대표와 강경란 아주대 LI NC+교육혁신부단장 겸 창의산학교육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주대와 엔젤식스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창업 동아리를 구성해 도전하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스스로 업을 일구어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및 창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해 성공적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협업체를 구성해 두 기관 간 인적 교류도 진행하기로 했다.

엔젤식스플러스는 LG그룹에서 CEO를 비롯한 중책을 역임했던 전문 경영인들이 뜻을 모아 함께 만든 창업 지원 회사로 지난해 말 출범했다.

/이현진 기자

## 성균관대 “학종, 수능최저학력 기준 미반영”

코로나 여파 고3 불리 지적 감안

성균관대가 올해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논술전형에서는 출결과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대학 입시에서 고3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성균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올해 대입전형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3학년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은 코로나19 상황

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한다.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 이전보다 축소된 활동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출결상황’도 불가피한 결손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교·지역·졸업연도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반영하지 않는다. 3학년 학생들의 활동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수시 논술전형의 비교과 영역(출석+봉사)은 졸업생을 포함한 지원자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이현진 기자

## 교육부 “수행평가 미시행 등 평가부담 완화”

등교수업 정착 위한 지원방안 발표  
코로나 등 천재지변·국가재난 상황 학습결손 최소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천재지변시 수행평가 미시행 등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법제정을 추진한다.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해 가정학습 활용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학교 환경을 위한 조치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수업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등교수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으로 교육부는 우선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천재지변·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이때 초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를 생략하고 담당 교사가 서술형으로 학생 성취도를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현재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중학교의 경우 수행평가 생략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 생략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백범 차관은 “대학 입시 6개월을 앞두고 평가 방법을 바꿀 경우 학교나 학생 상황에 따라 유불 리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계획한대로 진행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 최소화 방안도 내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격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및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학습자료 제공하고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제공 등 학교별 실정에 맞는 대체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포함해 관계 법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을 개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6월말까지 훈령을 개정해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단, 학교가 원한다면 교육청과 협의 하에 당장 1학기부터도 학교가 재량껏 운영할 수도 있다.

## 삼육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운영기관 선정

8월부터 11월까지 인문학 프로그램

삼육대 학술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

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은 공공 및 대학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해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인문 활동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삼육대 학술정보원은 지역주민과 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클래식 이야기와 함께 떠나는 통합 힐링 여행’을 주제로 다채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 추위·풍랑 뚫고 피난민 구출 ‘온힘’ 해군, 5인의 참전영웅에 무공훈장

황해도 피난민 구출 작전 참여 유가족에 총무무공훈장 등 전달

영하 20도의 추위와 심한 풍랑을 헤치며 피난민을 구한 대한민국 해군 태백산정(소해정, JMS-304)의 정장을 비롯한 한국전쟁 참전영웅 5명에게 약 70년 만의 훈장이 수여됐다.

해군은 1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부석중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한 무공훈장 서훈식에서 6.25전쟁(한국전쟁) 참전용사 5명의 유가족에게 총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공훈장을 받게 된 5인의 참전

영웅들은 황해도 피난민 구출 작전에 참가해 공훈을 세운 태백산정 정장 고(故) 양한표 소령, 고 광현보 소령, 고 남해용 중사, 고 백권식 중사, 고 이춘세 하사다.

총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동시에 받은 고 양한표 소령은 1946년 해군에 입대해 한국전쟁 기간 중이었던 1951년 1월 태백산정 정장으로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에 참전했다.

이후 1952년에는 상륙함 천보함 부장으로 초도-백령도-연평도-인천에 이르는 항로로 피난민 1만 3000여 명과 약 3000톤의 군수품을 안전하게 이송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